한국 방산 수출 세계 5위 눈앞

▲ AS-21 레드백. 호주의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 90억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한화디펜스

한국 방산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3일 '서울경제' 에 따르면 올해 한국 방산 업계는 수출액 100억 달러에 도전한다. 이는 세계 5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미국·러시아·프랑스·독일 등 글로벌 방산 선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올해 들어 한국산 무기는 연이어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먼저 1월 16일 UAE가 천궁-2를 35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달 1일에는 이집트와 16억 달러 규모의 K-9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호주의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이다. 한화디펜스가 만든 장갑차 AS-21 레드백이 독일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레드백이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되면 후속 군수 등을 포함해 총 90억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우주산업(KAI)의 경우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을 대상으로 FA50 경공격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중남미 각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경공격기는 총 60여 대, 3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K2 흑표 전차를 앞세워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방산 업체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이유로는 '가성비' 와 AS 능력이 꼽힌다. 방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철저한 사후 정비로 좋은 평판을 쌓고 있다." 고 했다.

최근 5년 사라진 은행 점포 약 1천500곳

최근 5년여간 사라진 한국의 시중은행 점포 수가 1천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점포는 총 1천50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 자동화 코너. 최근 5년여간 한국의 시중은행 점포 1,500개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하나은행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73곳, 2017년 420곳, 2018년 115곳, 2019년 135곳, 2020년 332곳, 2021년 1~10월 238곳 순이었다.

2016~2020년 5년간 국내 은행별 점포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304곳), KB국민은행(225곳), 우리은행(165곳), 신한은행(136곳)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씨티은행(91곳), NH농협은행(79곳), SC제일은행(66곳), 부산은행(50곳), IBK기업은행(42곳)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515개(40.4%), 경기도 245개(19.2%) 등 수도권에서 폐쇄된 은행 점포 수가 전체의 약 60%였다. 이어 부산 98개(7.7%), 대구 74개(5.8%), 경남 54개(4.2%), 인천 51개(4.0%) 순이었다.

강 의원은 "은행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은행이 가진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스마트폰과 자동현금인출기(ATM) 사용이 불편한 금융소외계층이나 노약자의 금융서비스 권리를 무시한 처사"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점포 폐쇄 등 현황을 반기별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 를 할 때 은행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는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서울 빌라 매매량, 아파트의 3배

서울 주택 매매 시장에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아파트의 매매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세계일보' 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빌라 매매(계약일 기준)는 1,447건으로, 아파트 매매(537건)의 약 2.7배에 달했다. 거래 등록 신고 기한(30일)을 고려하면 수치 자체는 변동될 수 있지만, 아파트보다 빌라 매매가 많은 추세가 바뀌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량은 빌라보다 통상 월간 2~3배까지도 많았다. 빌라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 탓에 주택 수요자들이 대체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빌라 매매량이 아파트 매매량을 추월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매매는 장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매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체 주택 매매(신고일자 기준) 가운데 빌라의 비중은 58.5%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월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라도 사자는 내 집 마련 수요가 강해지면서 빌라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2억5,969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빌라 평균 매매가는 3억4,559만원에 불과했다.